

Part III: Interdental distraction osteogenesis

The interdental distraction osteogenesis (IDO) is a technique of creating a segment of new alveolar bone and attached gingiva between teeth. It is a bifocal distraction osteogenesis. Interdental osteotomy is performed between teeth, and the osteotomized maxillary segment is then distracted and transported to approximate the alveolar cleft by using a tooth-borne or bone-borne intraoral distraction device. The need of extensive alveolar bone grafting therefore could be eliminated. The new edentulous alveolus between teeth is then used for relieve dental crowding in short period of time. The surgical design, distraction devices, clinical orthodontic procedures before and after distraction, and the results will be presented.

특강 II

Early treatment of nonskeletal problems

: Diagnosis, sensible treatment options and outcomes

Henry W. Fields, DDS, MS, MSD
University Ohio State U.S.A.

Abstract: This presentation will begin by observing the epidemiology of malocclusions and the treatment options that these data appear to suggest. This will be followed by a review of the data on diagnostic methods and our abilities as practitioners to prescribe treatment. Then, the presentation will focus on special problems that might benefit from early dental intervention and the biomechanical and treatment issues that come to bear on these situations, which influence the probability of success. Patient treatment materials will be used to illustrate this overview.

특강 III

교정학회의 현재와 미래

이준규 부회장
이준규 치과

1959년 김귀선 초대회장을 중심으로 창설된 우리 대한 치과 교정학회는 올해로 42년의 역사를 갖게 되었고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엄청난 규모로 발전하였다. 총 회원수에 있어서 2500여명을 망라하고 있으며 교정의를 배출하는 수련기관도 그 양과 질에서 현격한 발전을 이루었다. 또한 많은 회원들이 미국, 일본 등에서 교정학을 연마하고 돌

아와 우리 학계에 발전적 자극이 되어주고 있다.

그러나 엄청난 속도로 다가오고 있는 미래의 도전은 우리에게 커다란 숙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을 맞이하여 우리 학회의 현재와 미래를 다음과 같이 문제제기하며 그 해결책을 찾고자 한다.

1. 우리 학회는 엄청나게 늘어난 다양한 경력의 회원들을 어떻게 포용하며 관리할 것인가.
2. 우리 학회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즉 상대가치 수가제도, 보험의 확대등에 대하여 학회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3. 국민들에게 우리 교정의들을 어떻게 알리고 봉사할 것인가
4. 세계적 학문의 발전과 술식의 새로운 개발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방법은 무엇인가.
5. 우리 교정학회도 세계적, 국제적 무대에서 선진대열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6. 인정의, 전문의 제도를 여하히 합리적으로 발전시켜 모든 회원들에게 유익한 제도로 정착시킬 것인가.
7. 우리 학회의 장기적 미래에 대한 비전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하여 우리의 현재를 살펴보면서 우리 선학들의 위대한 유산을 발전적으로 계승하여 미래의 주인이 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한다.

특강 IV

교정영역에서의 디지털카메라의 선택과 활용

김용성 원장

한마음 치과

최근에 인터넷의 열기와 함께 디지털 카메라에 대한 관심이 무척 고조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미 판매액수 기준으로 필름카메라의 매출을 앞서고 있다고 합니다. 역시 카메라 분야에도 디지털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 100년간 근본적인 변화없이 점진적을 발전해오던 기존의 필름카메라도 디지털카메라의 거센 도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인터넷과 디지털이란 단어로 대변되는 변화의 시점에서, 발빠른 치과의사들은 벌써 치과임상에 디지털카메라를 과감히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디지털카메라에 관심은 있으나 아직 개념이 없으신 초보치과의사들을 위해 디지털카메라의 특징과 장점 그리고 우리 치과영역에서 어떻게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는지 다음의 내용들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1. 필름카메라 vs 디지털카메라

2. 치과용 디카의 요구조건 및 기종선정

a. 덴탈 디카의 요구조건

- * 뛰어난 macro/close up이 요구됨.
- * 외부 ring flash를 창작할 수 있을 것.